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 유엔 전문가 대한민국 방문

제네바 (2022년 6월 23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 토마스 오헤아 키타나가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대한민국에 공식 방문합니다.

오헤아 키타나 특별보고관은 방한 기간동안 정부관계자, 시민사회단체, 피해자 및 그 가족, 외교계 인사 등과 만날 예정입니다.

오헤아 키타나 특별보고관이 2016년 3월 인권이사회 임명을 받은 후 8번째 대한민국 방문입니다.

특별보고관은 6월 29일 수요일 (현지 시각 기준)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언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서울글로벌센터 (종로구 종로 38) 8층에서 진행될 질의응답에는 언론관계자만 참여 가능합니다.

오헤아 키타나 특별보고관의 임기는 오는 7월 마무리됩니다.

끝

토마스 오헤아 키타나 (르헨티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으로 2016년 유엔 인권이사회 임명을 받았다. 키타나 특별보고관은 아르헨티나에서 형법, 인권, 공익 분야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사건을 다루고 시민사회단체 등을 대변해왔다. 현재 보편관할권을 적용하여 로힝가족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 사건을 다루는 재판에 변호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제도로, 특별절차는 유엔 인권 제도 하에서 가장 많은 독립전문가가 참여한다. 특별절차는 특정국가 인권 또는 전세계에 적용하는 특정 인권 주제를 다루기 위해 인권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사실 관계를 규명하고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특별절차 전문가는 유엔 직원 신분이 아니고 무보수로 자발적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여타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며 개인 역량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유엔 인권 국가별 웹페이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

추가 정보 및 언론사 문의는 Madoka Saji (+82 10 4230 3523 / msaji@ohchr.org)로 문의해 주십시오.

기타 유엔 독립전문가 관련 언론사 문의는 Renato de Souza (+41 22 928 9855 / renato.rosariodesouza@un.org) 또는 Dharisha Indraguptha (+41 79 506 1088 / dharisha.indraguptha@un.org)로 문의해 주십시오.

유엔 독립 인권 전문가 관련 소식을 트위터(@UN_SPExpert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